

‘사장이 약속 어겼다’... 하든, 필라델피아에 분노



▲ 제임스 하든 사진-SBS 뉴스

하든이 필라델피아 수뇌부를 저격했다.

5일 ‘점프볼’에 따르면 제임스 하든은 전날 ‘디에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전 소속팀이었던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사장 대릴 모리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폭로했다.

하든은 “2021-22시즌 플레이오프가 끝나고 모리 사장이 직접 나에게 맥시멈 계약을 줄 것이라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연락이 없었다. 모든 것은 다 비즈니스다.”라고 말했다.

하든은 지난여름 내내 모리 사장을 저격하는 인터뷰를 남겼다. 주요 내용은 자신에게 맥시멈 계약을 제시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하든은 필라델피아에 공식적으로 트레이드를 요청했고, 2023-2024시즌 개막 1주일 후 자신이 지목했던 LA 클리퍼스로 트레이드 됐다. 모리 사장은 끝까지 하든 트레이드를 끌고 가며 그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했으나, 클리퍼스 구단주와 필라델피아 구단주끼리 협상하며 하든을 이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든과 모리 사장은 휴스턴 로켓츠에서 만나 서로 전성기를 보냈다. 하든은 휴스턴에서 MVP 포함 정상급 슈퍼스타로 거듭났고, 모리 사장은 휴스턴에서 NBA 최고의 경영인으로 떠올랐다.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나, 필라델피아에서 재결합했으나, 이 만남은 파국이었다.

한때 NBA 최고의 시너지를 자랑했던 하든과 모리 사장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며 이번 시즌이 끝나고 웃는 사람은 누가 될지 주목된다.

존 램 “LIV 골프로 이적” ... PGA 투어 충격

남자골프 세계랭킹 3위 존 램(스페인)이 LIV 골프 이적을 공식 발표했다. 역대 최고 이적 계약금을 받으며 새로운 도전을 택했다.

램은 8일 골프다이제스트 등 골프 매체를 통해 “LIV 골프로 옮긴다”고 이적을 공식화했다.

LIV 골프는 LIV 골프 커미셔너 그레그 노먼이 램에게 LIV 골프 전퍼를 입혀주는 사진을 공개했다. 램이 이적하며 LIV로부터 받는 계약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역대 최고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매체별로 추정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애슬레틱스는 4억5,000만달러, ESPN은 3억달러 이상 등 보도를 종합했을 때 역대 최고 수준인 것은 확실하다. 필 미



▲ 존 램 사진-AFPBBNews

컬슨(미국)이 LIV로 이적하며 받은 2억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조건이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는 충격이 크다. 램은 PGA 투어 통산 11승을 올린 간판스타다.

LIV 골프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의 막대한 자금력을 등에 업고 2022년 6월 공식 출범했다. 계약금에 PGA 투어 대회의 몇배에 달하는 대회 상금 등 매력적인 조건으로 PGA 투어 스타들을 대거 빼갔다. PGA 투어의 지속적인 견제 속 침예한 갈등 관계가 이어졌던 LIV 골프는 지난 6월 PGA 투어와 PIF의 합병 발표로 사라지는 듯했지만, 이번 램의 영입으로 오히려 더 힘을 키우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아이링, ‘먹튀’ 논란에도 천문학적 수입

미국에서 중국으로 귀화한 스포츠스타 구아이링(20, 미국명 예일린 구이) 여전히 천문학적 수입을 올리고 있다.

7일 ‘OSEN’에 따르면 미국 스포츠경제지 ‘스포티코’는 이날, 2023년 가장 수입이 많았던 여자 선수 톱10을 선정해 발표했다. 10명 중 7명이 테니스 선수였다.

테니스 선수 코코 고프(19, 미국)가 2,270만 달러로 1위, 이가 시비웅테크(폴란드)가 2,190만 달러로 2위다. 3위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대륙의 연인’으로 떠오른 구아이링이다. 그는 2023년 한 해만 2,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구아이링은 미국인 아버지와 중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랐다. 미국 청소년 대표였지만 2019년 중국으로 귀화해 엄청난 논란이 됐



▲ 구아이링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딴 메달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xinhuanet.com

다. 미국올림픽협회의회는 그녀를 맹비난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 외교 전에 구아이링을 이용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인민영웅’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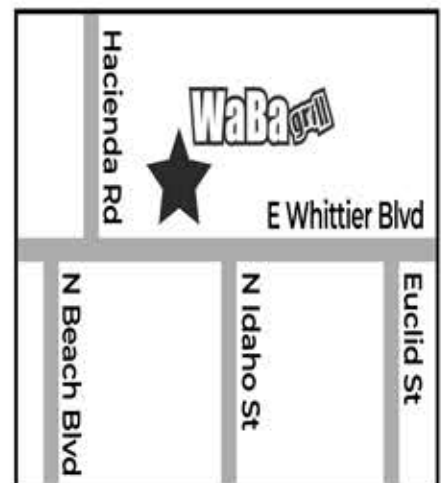
구아이링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부문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따내며 ‘중국의 스타’로 떠올랐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후 구아이링은 중국기업 및 글로벌 기업들과 총 25개의 광고계약을 하며 무려 1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구아이링은 올림픽이 끝난 뒤 미국에 거주하며 ‘먹튀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그러자 구아이링의 SNS에는 “중국에서 나가라!”, “돈 벌러 중국에 오나?”라는 중국 팬들의 악플이 달리고 있다.

논란에도 여전히 여러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천문학적 돈을 후원 받고 있다.

WaBa grill

La Habra Eat Smart, Be Healthy!



562.266.0011

<https://order.wabagrill.com/store/5966>

1351 W. Whittier Blvd. La Habra, CA 90631